



드레스덴 필하모닉

Dresdner Philharmonie

150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의 대표 오케스트라로서 드레스덴이 첫 콘서트홀을 갖기 시작한 1870년 이래로, 드레스덴 필하모닉을 중심으로 도시의 문화가 발달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오늘날까지 정기 연주뿐만 아니라 오라토리오 분야에서 콘서트 오케스트라로도 활동해왔으며 2017년 4월에 새로 신축된 문화궁전(Kulturpalast)에 상주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마하엘 잔데를링이 수석 지휘자로 있으며,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수석 지휘자로 있었던 쿠르트 마주어 이전에는 파울 반 캄펜, 카를 슈리히트, 하인츠 본가르츠, 헤르베르트 케겔, 마렉 야놉스키, 라파엘 프뤼베크 데 부르그스 등 여러 지휘자들이 악단과 함께했다.

다채로운 음악 색깔을 자랑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낭만 레퍼토리를 통해 독일 정통 '드레스덴 사운드'를 유지하면서도 바로크와 빈 클래식 음악, 그리고 현대 곡들을 통해 유연한 사운드와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켜왔다. 오케스트라는 여러 지휘자들의 지휘 아래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자크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펜데레츠키, 홀리거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연주해왔다.

세계 초연 무대는 오늘날까지 오케스트라 레퍼토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공연장에서 초청받아 연주하며 그들의 국제적 명성을 입증해왔다. 1937년부터 광범위한 디스코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하엘 잔데를링 지휘 아래 쇼스타코비치와 베토벤 교향곡이 페어링 된 음반 사이클을 소니 클래식 레이블을 통해 제작했다.